

KONETIC Newsletter

# 환경책임투자 동향 브리프

2024년 2분기

## 정책 동향

### EU Council, 'EU 공급망실사지침(EU CSDDD)' 최종 승인

EU 차원의 입법 절차 마무리해 공식 발효 앞뒀,  
적용 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

EU 이사회(EU Council)가 5월 24일(현지시간) EU 공급망실사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EU CSDDD")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지침은 EU 관보 게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식 발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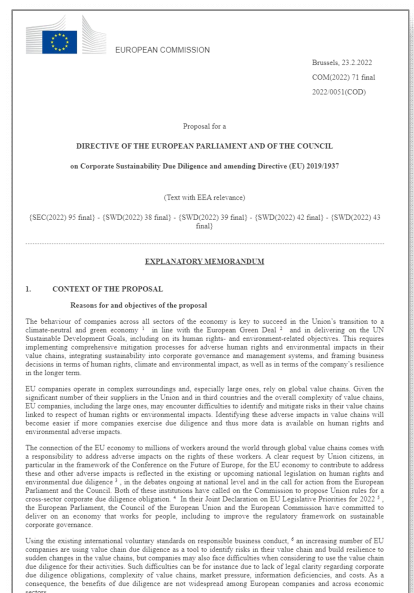
EU CSDDD의 적용은 기업의 EU 역내 여부, 직원 수 및 순매출액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U 역내 기업 중 직원 수 5,000명을 초과하면서 글로벌 순매출액 15억 유로(한화 약 2조 2,427억 원)를 초과한 기업은 지침 공식 발효 3년 이후부터 적용받는다. 직원 수 3,000명 초과 및 순매출액 9억 유로(한화 약 1조 3,484억 원) 초과 기업은 4년 이후, 직원 수 1,000명 초과 및 순매출액 4억 5,000만 유로(한화 약 6,712억 원) 초과 기업은 5년 이후부터 순차 적용한다.

EU 역외 기업은 직원 수의 기준 없이 순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U 역내 순매출액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 기업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EU CSDDD가 적용 대상 기업의 공급망 내용까지 포함하는 만큼, 한국 기업 또한 실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ISSB 기준을 준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토대 마련

글로벌 3대 ESG 공시기준이 확정된 데 이어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KSSB)는 4월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 초안(이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KSSB는 국내 ESG 공시 등 각종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기구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SSB)의 기준을 준용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하, "ISSB 공시기준"인 '일반 요구사항(IFRS S1)'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을 발표한 것에 따른 국내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공개초안은 ISSB 공시기준 및 EU/미국 등 국제 공시기준과 정합성을 맞추고, 투자자에게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KSSB의 공시기준은 기업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KSSB 제1호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공시는 의무화했고,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은 공시 주제별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의 내용, 표기 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호는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핵심 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별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거버넌스의 경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결정 방식, 목표, 보상과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제101호는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산발적으로 공시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려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기업이 선택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KSSB는 이날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5월부터 4개월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기준 발표와 함께 기업의 공시기준 적용과 이행을 돕기 위해 관련 지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개초안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 2024. 4. 30.

## ESMA, 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펀드명 가이드라인 최종본 발표

### ESMA 신규 가이드라인,

### ‘ESG’ 또는 ‘지속가능성’ 펀드 명명 규칙과 투자 제한 기준 명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5월 14일(현지시간) ‘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펀드명 가이드라인 최종보고서(Final Report - Guidelines on funds’ names using ESG or sustainability – related terms, 이하 “ESMA 펀드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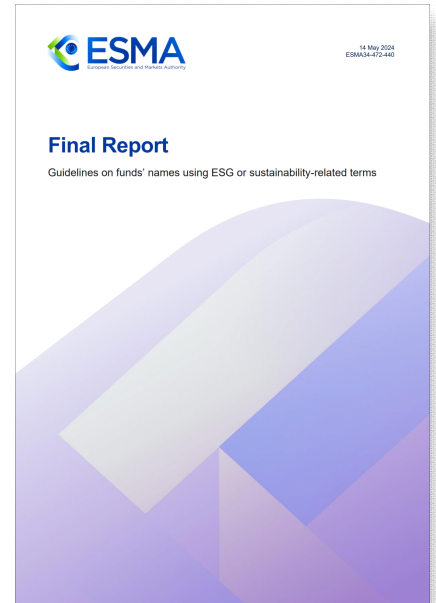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기존의 ESG 펀드와 비공개 ESG 펀드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 하도록 했다. 초안에서는 펀드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속가능(Sustain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종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기준을 80%까지 강화했다. 펀드명에 ‘지속가능’, ‘ESG’ 외에도 연관된 일부 키워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SMA는 ESG 펀드를 ▲전환(Transition),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al), ▲임팩트(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6가지 카테고리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키워드와 투자 제한 기준을 수립했다.

E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산 운용사는 ‘친환경’, ‘임팩트’, ‘넷제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키워드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각 카테고리에 따라 투자 제한 기준은 달라진다. 전환,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는 EU 기후 전환 벤치마크(EU Climate Transition Benchmark, CTB)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고, 환경(E)과 임팩트 분야는 파리 기후협약 부합 벤치마크(Paris-Aligned Benchmark, PAB)에 따라 기준이 설정된다. ‘지속가능성’ 키워드는 ESG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이므로 CTB와 PAB 제한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ESMA는 웹 사이트에 모든 EU 공식 언어로 게재 3개월 뒤부터 발효되고, 기존 펀드들은 9개월 뒤부터 적용 예정이다.

ESMA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포함하여 투자업계의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ESG 펀드 시장은 유럽에 비하여 규모가 작지만, 그린 워싱 펀드에 대한 국내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작년 10월 국내 ‘ESG 펀드 공시기준’을 발표하면서 펀드명에 ESG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상품의 운용 기준을 제시했다.



## EU Council, 'EU 탄소중립산업법(EU NZIA)' 최종 승인

### 태양광·원전 등 사업 허가 간소화

### 탄소중립기술 제조 역량 역내 40% 생산 목표, EU 관련 기업 점유율 15%까지

EU 이사회(EU Council)가 5월 27일(현지시간) EU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을 최종 승인했고, EU 관보에 게재 20일 뒤부터 발효된다.

EU NZI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응해, 역내 청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입법 패키지인 '그린달'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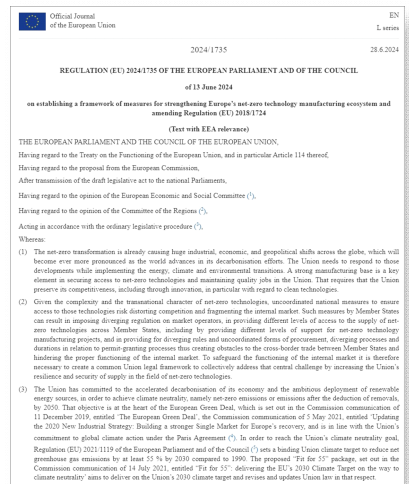
2030년까지 EU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제조하고, 2040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법의 목표다.

해당 법에 따르면 태양광, 배터리, 원자력 발전 등 19가지를 '탄소중립기술'이 별도로 지정돼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각 회원국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한 '탄소중립 산업 벨리'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는 EU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후 202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美) IRA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으나, "EU에서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산업계는 곧 발효될 EU NZIA에 따라 청정산업계에 발생할 변화와 추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관련 규제에 대해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탄소중립기술(Net-Zero technologies) 목록에는 △태양광 △육상 풍력 및 해양 재생에너지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수소 △지속가능한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탄소포집 및 저장 △전력망 △원자력에너지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수력발전 △기타 재생에너지 △(에너지 시스템 관련) 에너지 효율 △비생물 기반 재생가능연료 △바이오에탄올 기후 및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산업 △CO<sub>2</sub> 수송 및 활용 △운송용 풍력 및 전기 추진 △기타 핵 기술 등이 포함된다.



## 2024년 2분기 국내 녹색채권 28건, 2조 2,205억 원 발행

1분기 대비 11건 증가, 4,820억 원 감소

2024년 2분기 발행 금액 주체는 금융사에 집중

2024년 2분기 동안 한국거래소 상장 및 공시 완료된 국내 녹색채권은 총 28건, 발행 금액은 총 2조 2,2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1분기 발행 현황(17건, 2조 6,866억 원) 대비 발행 개수는 11건이 증가하고 발행 금액은 4,82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동안 가장 많은 발행 개수를 기록한 발행사는 현대캐피탈(5건)이며, 가장 많은 발행 금액을 기록한 발행사는 산업은행(5,000억 원)이다.

발행사 유형<sup>1)</sup>별로 살펴보면 발행 개수 측면에서는 **발전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 각 3건, 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 각 2건, 한화에너지 1건). 다음으로는 **금융사 9건**(현대캐피탈 5건, 삼성카드 2건, 부산은행·산업은행 1건), **제조사 2건**(한화에어로스페이스 2건, KT&G 1건), **건설·중공업 2건**(한국토지주택공사 2건), **기타 3건**(2024기보 제일차유동화전문, 신보2024제7차유동화전문, 신보2024 제10차유동화전문 각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행 금액 측면에서는 **금융사가 총 1조 1,200억 원**으로, 2024년 2분기 전체 발행 금액의 약 51%를 발행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은행 5,000억 원, 현대캐피탈 3,700억 원, 삼성카드 1,500억 원, 부산은행 1,000억 원)

이 밖에도 **발전사에서 6,000억 원(27%)**, **제조사 2,500억 원(11%)**, **건설·중공업 1,500억 원(7%)**, **기타 8,465억 원(4%)**에 해당하는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및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을 준거한 **한국형 녹색채권**은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발행 개수의 약 **7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총 발행 금액은 **1조 8,246억 원**으로, 2분기 전체 발행 금액의 약 **8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개수를 발행한 발행기관은 현대캐피탈(5건)이며, 가장 많은 금액을 발행한 발행기관은 산업은행(5,000억 원)이다.

### 2024년 2분기 녹색채권 발행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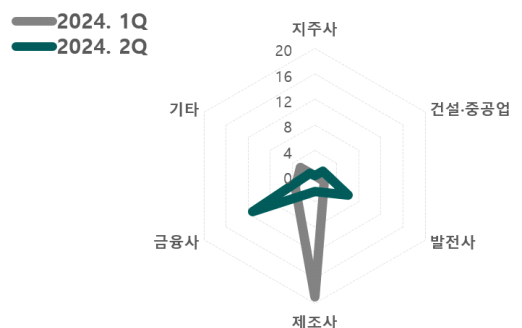
### 2024년 2분기 녹색채권 발행 금액



### 발행사 유형별 녹색채권 발행 개수(건)



### 발행사 유형별 녹색채권 발행 금액(천억 원)





외부검토기관에서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22건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확인서'를 기준으로 (예상)자금사용처<sup>2)</sup>의 6대 환경목표를 살펴본 결과, 21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사용처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목표가 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 밖에 '오염 방지 및 관리' 목표 2건,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은 각 1건이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국내 발행된 녹색채권은 4조 8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3년 하반기 동안 전체 2조 6천억 원의 발행 규모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8배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리 인하와 함께 ESG채권 투자가 양호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내 녹색채권 발행현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 환경책임투자 > 녹색채권 > 녹색채권 발행현황'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발행사 유형은 NICE 기업정보에 등록된 산업 및 주력업종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재분류함
- 2) 채권에 따라 2개 이상의 환경목표에 해당하는 자금사용처가 존재하므로 전체 발행 건수 합계와는 불일치할 수 있으며, 수치는 채권별 사후보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 <https://sribond.krx.co.kr/index.jsp>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녹색채권 발행현황 | <https://www.gmi.go.kr/gb/pblcnSttusList.do>

## 2024년 2분기 국내·외 주요 발간물

### ESG규제 분야

- |                                       |                                   |
|---------------------------------------|-----------------------------------|
| ☑ 공급망 실사 관련 주요 규제 동향                  | 법무법인 화우 2024-04-18                |
| ☑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유럽의회 최종 통과       | KOTRA 2024-04-24                  |
| ☑ Carbon Pricing for Green Transition | Asian Development Bank 2024-05-01 |
| ☑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유럽의회 최종 통과         | KOTRA 2024-05-07                  |
| ☑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 KDB미래전략연구소 2024-06-03             |

### 녹색채권 분야

- |  |                                     |
|--|-------------------------------------|
| ☑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4-01                |
| ☑ Get the money moving: Meeting the European corporate transition challenge                                | CDP 2024-04-08                      |
| ☑ Local Governments Climate Finance Instruments - Global Experiences and Prospects in Developing Countries | The World Bank, 2024-04-12          |
| ☑ Global State of the Market Report 2023   | Climate Bonds Initiative 2024-05-02 |
| ☑ China Sustainable Debt State of the Market Report 2023   | Climate Bonds Initiative 2024-05-13 |
| ☑ The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 OECD 2024-05-27                     |
| ☑ 일본 전환금융 제도 및 은행권 동향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4-06-12                |
| ☑ 최근 ESG 펀드 투자 둔화 배경 및 전망  | 국제금융센터 2024-06-21                   |

### 녹색분류체계 분야

- |   |                                      |
|---|--------------------------------------|
| ☑ 캐나다 전기차(EV) 배터리 공급망 동향 및 시사점  | KOTRA 2024-04-01                     |
| ☑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방향  | 한국무역협회 2024-04-15                    |
| ☑ Financing Industrial Decarbonization. Challenges and Solutions for the Indian Iron and Steel Sector | Climate Policy Initiative 2024-04-18 |
| ☑ 제조 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  | 한국무역협회 2024-04-24                    |
| ☑ 미국 수소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4-29                 |
| ☑ Building Resilient and Responsible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for the Clean Energy Transition  | Asian Development Bank 2024-05-01    |
| ☑ 20 Policy Levers to Decarbonise Buildings in Europe   | Climate Bonds Initiative 2024-05-02  |
| ☑ 해상풍력발전 동향   | KDB미래전략연구소 2024-05-03                |
| ☑ 탄소 중립 시대 튀르키예의 에너지 로드맵 및 기회요인   | KOTRA 2024-05-21                     |
| ☑ 생물다양성 이슈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 대신경제연구소 2024-06-12                   |

### 환경정보공개 분야

- |   |                    |
|---|--------------------|
| ☑ 자연자본 공시 지침 주요 내용 및 최신 동향                    | 법무법인 화우 2024-04-03 |
|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을 위한 사바나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한국은행 2024-04-25    |
|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공개                        | 한국은행 2024-05-08    |
| ☑ 지속가능성 공시의 Scope 3 배출량 관련 이슈                 | 보험연구원 2024-05-09   |
|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글로벌 기준서 비교                 | 대신증권 2024-06-04    |
| ☑ ESMA, ESG 펀드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간           | 법무법인 세종 2024-06-28 |

ESG, 환경책임투자 관련 더 많은 국내·외 발간물이 궁금하다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 알림/자료실 ▶ 각종보고서 ( <https://www.gmi.go.kr/np/boardList.do?menuCd=9040> )

## 주요 행사 동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중

#### 국제환경규제 대응 위한 인재 양성 목표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국제환경규제 대응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올해 양성 과정은 기존 '종합 교육과정' 외에 '기초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종합 교육과정은 글로벌 ESG 공시 및 ESG 평가대응 등 ESG 규제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 산정, CBAM, 기후리스크 관리 등 탄소중립 규제 대응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된다.

기초 교육과정은 ESG 경영 필요성 및 규제, 기업 탄소배출 관리, ESG 실무 이해 등 ESG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되며, 심화 교육과정은 ESG 공시 및 검증, 공급망 실사, 전과정평가(LCA),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 세부 내용을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외 제품 단위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 방법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2024년 6, 7월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원: 기초, 종합, 심화 (OESG 공시 검증, O공급망실사, O전과정평가, OK엑소노미)  
\*과정을 별도 분량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 (대형 인 출석권을 가용하나 신청인원 초과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다.)

교육기관 및 장소

교육원	기간	장소	교육내용
기초	7.4(목) ~ 7.5(금) (2일)	120명 LW 컨벤션 그랜드 호텔 (서울특별시) 연세대학교 208 호수 강당	ESG 국제 overview, 탄소배출 관리 및 ESG 경영 실무적 이해
종합	7.1(월) ~ 7.5(금) (5일)	30명 삼전빌 112 (서울특별시)	ESG 국제 이해 (공시, 평가, 검증, CBAM, 기후리스크 관리) 및 탄소중립 구현전략
심화	① ESG 공시 검증 8.26(목) ~ 8.28(금) (4일)	30명 비바알파 코퍼레이션빌 (서울특별시)	ESG 공시(OR Certified 과정) 및 검증원(AE3000, AAI000)
	② 공급망실사 7.23(목) ~ 7.25(목) (3일)	30명 LW 컨벤션 다이하드호텔(서울특별시)	공급망실사 구현전략 및 실사준비책 개발, AI나비리 대응 실무
	③ 전과정 평가 7.10(수) ~ 7.12(금) (3일)	150명 스페이스서울이플루엔터 스카이홀(충청남도)	전과정평가 개념 및 범위 설정, 전과정 구축방식
	④ K엑소노미 7.18(목) (1일)	60명 비바알파 코퍼레이션빌 2, 3호 (서울특별시)	녹색금융 제도 이해, 녹색금융정책 적용방법과 사례, 제정일 확인

☞ 행사 관련자료 | <https://gmi.go.kr/ht/intro.do>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산업은행,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기반한 녹색금융 지원 확대 위해 협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6월 26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 시장에 안착시키고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녹색성장 달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성화 및 녹색금융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요 협업 사항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및 지원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별 환경 개선효과 산정방법 개발, ▲대·중소기업 공급망 저탄소화 녹색금융 지원 협력 확대 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국가 기후금융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업을 통해 녹색분류체계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 행사 발표자료 | <https://www.keiti.re.kr/site/keiti/ex/board/View.do?cblidx=237&bclidx=37174>



## 한국회계기준원, '제143회 KAI Forum' 개최

### 한국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공개초안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한국회계기준원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4월 30일 발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제143회 KAI Forum'을 개최했다.

5월 16일에 진행된 이번 포럼은 공개초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사항(제101호)'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주제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은 홍현선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공시를 위한 기준이 필요했다"고 이번 공개초안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에서는 기후 외 주제를 선택 공시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비롯하여 공시 인프라 지원과 관련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산업별 구체적인 적용 지침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포럼 개최 영상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사 발표자료 | [https://www.kasb.or.kr/front/board/comm010View.do?siteCd=0020000000000000&seq=1913&tab=ALL&searchfield=ALL&searchword=&categoryList=&s\\_date\\_start=&s\\_date\\_end=](https://www.kasb.or.kr/front/board/comm010View.do?siteCd=0020000000000000&seq=1913&tab=ALL&searchfield=ALL&searchword=&categoryList=&s_date_start=&s_date_end=)

## 산업통상자원부-KOTRA,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 개최

### EU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임박, 정부-업계와 지침 대응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5월 9일 공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법무법인 세종이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 및 향후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 관련 우리 기업 준비사항 및 사례'를, 독일 로펌에서는 독일 공급망 실사지침을 토대로 유럽 현지 동향 및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국 후속법 및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 행사 발표자료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9022/view?mno=&pageIndex=25&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5회 ESG ON 세미나' 개최

### '국내외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6월 19일 제15회 'ESG ON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이다.

세미나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백태영 위원이 ISSB 중심 글로벌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이웅희 부위원장은 국내 지속가능성공시기준(공개초안) 주요 내용을 발제했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추세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ESG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제16회 ESG ON 세미나는 다가오는 7월 17일 'EU 탄소중립산업법(EU NZIA), EU 핵심원자재법(EU CRMA)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훈 부연구위원이 각각 'EU 탄소중립산업법 도입과 영향력', 'EU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 및 파급효과'를 세부 내용으로 발제한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며, ZOOM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 웹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발제 내용에 대한 사전 질의가 가능하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6회 ESG ON 세미나

'EU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2024. 07. 17.(수) 15:00 ~ 16:30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5:00 ~ 15:05	세미나 및 발제자 소개
15:05 ~ 15:45	발제 1 :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도입과 영향력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
15:45 ~ 16:25	발제 2 :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훈 부연구위원)
16:25 ~ 16:30	마무리

세미나 접속 링크

링크 : <http://naver.me/xJi3Seq3>  
회의ID : 860 2570 8543  
암 호 : 704804

접수 및 사전질의 링크

7/16(화) 17시까지 접수 가능  
※ 사전접수자 중 요청자에 한하여  
교육 수수료 할인(80% 이상 할인 시)

세미나 정보

참가비 : 무료  
대 상 : ESG 관련 산/학/연 관계자  
방 식 : 비대면 웹 세미나 (ZOOM 온라인 생중계)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인프라지원단  
이 메 일 : [esgon@keiti.re.kr](mailto:esgon@keiti.re.kr)  
전화번호 : 02-2284-1583

제 17회 ESG ON 세미나 Preview

일시 | 2024. 08. 21. (수) 15:00 ~ 16:30  
주제 | ESG 평가 시장의 이해와 녹색투자 활용 사례

발제 | 한국ESG연구소 이세원 본부장  
NH투자자산운용 최용환 실장

☞ 행사 발표자료 | <https://www.keiti.re.kr/site/keiti/ex/board/View.do?cbldx=277&bcldx=37116>

ESG,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주요 행사소식이 궁금하다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 알림/자료실 ▶ 외부 행사소식 ( <https://www.gmi.go.kr/np/boardList.do?menuCd=9030>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단 녹색투자지원실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TEL. 02-2284-1985 FAX. 02-2284-1991 E-mail [kdy8084@keiti.re.kr](mailto:kdy8084@keiti.re.kr)

[www.gmi.go.kr](http://www.gmi.go.kr)

copyright 2024 by KEITI, All right reserved.

**환경책임투자**  
AN ENVIRONMENTAL  
RESPONSIBLE INVESTMENT **종합플랫폼**

환경책임투자 동향 브리프 |

10

2024년 2분기